

1/30/22

설교 제목: 중보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32 장 1-35 절

- (출 32: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뎠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 (출 32: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 (출 32: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 (출 32: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 (출 32: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와 절일이니라 하니
- (출 32: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 (출 3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 (출 32: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 (출 32: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뿔뿔한 백성이로다
- (출 32:10)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절관주** 민 14:12
- (출 32:11)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 (출 32:12)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 (출 32: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 (출 32: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 (출 32:15)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 (출 32: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 (출 32:17)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 (출 32:18)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 (출 32:19)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 (출 32:20)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 (출 32:2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절관주** 창 20:9
- (출 32:22)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 (출 32:23)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 (출 32:24)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 (출 32:25)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 (출 32: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 (출 32:2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절관주** 신 33:9
- (출 32: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 (출 32:29)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 (출 32: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절관주** 삼상 12:20, 삼하 16:12
- (출 32:31)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 (출 32: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 (출 32: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 (출 32:34)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 (출 32:35)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고로 죽을 수 밖에 없었지만 모세의 중보로 화를 면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 위에 올라가 40 일 동안 하나님과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동안 산 아래 기슭에서 모세가 돌아오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자 모세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출 32: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뎠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 32: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출 32: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출 32: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 32: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출 32: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금고리를 부어 만든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을 공포합니다.

송아지의 절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단순히 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저들은 이튿날 송아지 형상에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과 꼭 같이 한 것입니다.

용어도 행위도 같게 말입니다.

다만 예배 대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신'이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신을 위하여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증거하고 믿는다면 성경이 계시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여호와라는 동명이인의 하나님을 만들어 예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만들라고 거듭 강조하셨던 이유입니다.

산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이 주어지고 있는 동안 산하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거짓되고 배은망덕한 인간이 대조됩니다.

인간은 처음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사 원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와서 진멸을 당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출 3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 32: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 32: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뿔뿔한 백성이로다

(출 32:10)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 '내백성'이 아닌 '네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명령하신 길을 속히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서약한지 불과 40 일만에 십계명 1 2 3 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신 32:6)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고 모세의 중보는 극적인 반전을 일으킵니다.

(출 32:11)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출 32:12)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 32: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까

(출 32: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한다면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고 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또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국이 여호와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멸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민 14:15)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민 14:16)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친히 새겨 주신 십계명이 적힌 두 증거판을 가지고 백성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출 32:15)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출 32: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 32:17)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출 32:18)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출 32:19)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출 32:20)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내려와 보니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며 거기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은 배은망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노를 거두고 저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양 크게 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보아 모세의 행동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파기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은 저주 하에 놓인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들이 행위 언약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들을 '행위 언약' 아래서 '믿음 언약' 아래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구원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행위의 길과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롬 4:3)한 믿음 언약이었고 깨어진 언약은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한 행위 언약입니다.

깨어진 언약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의 언약이 아니고 '이를 행하는 자는 살리라'한 행위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갈 3: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증거판을 깨뜨리게 하심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언약은 은혜 언약이니 깨어질 수 없습니다.

(출 32:2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출 32:22)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출 32:23)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출 32:24)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 32:25)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출 32: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와 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출 32:2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출 32: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출 32:29)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날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에 의하여 백성 삼천 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란 송아지 신상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한 후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출 32: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출 32:31)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출 32: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보응을 보류하십니다.

(출 32: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출 32:34)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출 32:35)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들의 죄를 보류해두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때까지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까지 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히 9:15)

주님께서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범한 죄까지 대신 보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히 9:15) 그(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구약시대)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보응하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응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신 18:15)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 지니라

(딤후 2:5)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중보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